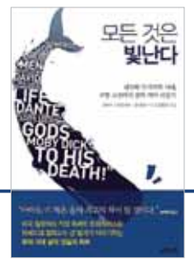


'모든 것은 빛난다' 휴버트 드레이퍼스·숀 도런스 켈리 지음

고전에서 찾는 현대인들의 '빛나는 삶'

제목이 시적이다. '모든 것은 빛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을 발한다는 의미다.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우울하다. 삶은 불안하고 일상은 무기력하다. 어느 순간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진다.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우울과 허무는 삶을 극단으로 내몬다.

이러한 시대적 병증의 기저에는 지나친 '낙관'이 드리워져 있다.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개인의 자율성",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자아"는 그 이면에 무거운 책임과 엄중한 선택을 요구한다.

철학자 한병철(독일 카를스루에 조형예술대학 교수)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의 사회를 피로사회로 정의한다.

과다한 긍정이 오히려 자아를 착취하는 주 원인이라는 거다. 성과사회는 사람을 파편화하고 우울의 덫에 빠지게 한다. 과다한 자기 긍정은 폭력과 자학의 다른 이름이다. 허무와 무기력을 부채질하는 자기 기만이다.

실존주의 철학 연구로 유명한 휴버트 드레이퍼스 캘리포니아대 철학과 교수와 하버드대 철학과 학과장인 숀 도런스 켈리 교수가 공동 집필한 '모든 것은 빛난다'는 허무에 빠진 현대인들을 위한 인문교양서다. 저자들은 서양고전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자고 제안한다.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단테 '신곡', 허먼멜빌 '모비딕'은 저자들이 선택한 고전들이다.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서 칭송한 인물들은 현대적 실존 상황이 문제되지 않던 시대에 살았다. 헬레네는 파리스와 연정에 빠져 도망쳤다가 집에 왔지만 오히려 남편의 칭송을 얻는 여인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와 가정의 신 헤라가 한 인물을 동시에 지배하듯이, 신들이 정해주는 운명에 자신의 존재를 조율하며 살았기에 가능했다.

단테는 '신곡'에서 인간이 의지에 따라 실존의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악마의 특성으로 돌린다. 신의 사랑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장하는 개인의 의지를 꽁꽁 언 지옥의 특성으로 돌린다.

저자들은 우리 자신을 의미의 생산자나 부여자로 보지 말라고 한다. 세상이 일으켜 보여주는 의미의 발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다한 개인의 자율과 이에 따르는 책임은 끊임없는 생산자가 되라고 부추긴다. 성과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생산'은 허무와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주 원인이다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 작 '단체, 신곡, 그리고 피렌체 시'. 1465년 단테 '신곡'의 배경이 되는 요소들을 잘 담은 그림이다.

저자들은 "모든 것이 빛난다"는 고대의 다신적(多神的) 사고와 같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다신적'이라는 말은 종교적 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신(神)은 행위와 사건, 타자적인 계기가 결합된 말이다.

세상의 무수한 상황이 주는 의미의 순간을 만끽하고 감사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때 '빛나는 삶'은 재현된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극단적인 감정이나 날카로운 이성 어느 곳에도 빠지지 않는 균형감각도 요구된다.

〈사월의 책·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1990년대를 건너온 이들의 고백

'안녕, 내 모든 것'

정이현 지음

젊은 세대의 삶과 고민을 예리한 시각으로 그려온 정이현의 신작이 나왔다. 새 장편 '안녕, 내 모든 것'은 1990년대를 지나온 한 세대의 고백이자, 과거와 현재를 되묻는 소설이다.

작품은 김일성이 죽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90년대 중반 강남 반포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복잡한 가정사를 지닌 채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 집에 얹혀사는 세미, 반복적으로 욕설을 내뱉는 '뚜렛 증후군'에 시달리는 준모, 비범한 기억력의 소유자 지혜가 주인공이다.

중학교 때부터 같은 공간에서 자란 이들은 나눌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있다. 소설은 세미를 중심으로 시점을 교차해가며 우정과 사랑, 쓰라린 성장의 과정을 그려낸다. 서로에게 전부와도 같을 만큼 가까웠던 셋은 스무 살에 접어들면서 점차 완고한 세상의 질서 속으로 편입된다.

소설은 세 주인공이 함께 나누는 세대적 경험을 통해 90년대라는 시간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김일성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전두환·노태우 구속, 하이텔 PC 통신, 서태지의 음악 등 90년대 중반의 굵직한 사건들과 소소한 풍경은 잔잔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1990년대의 기나긴 날들을, 무력하기만 하던 이십대를 그 의무감으로 견뎠다. 그것만이 나를 견디게 했다. 오랫동안 품어온 제목 '내 모든 것'에 '안녕'이라는 인사를 붙이자 비로소 소설이 틀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다"며 문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창비·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그림 밖으로 불러낸 조선지식인들의 이상·운명

'그림문답'

이종수 지음

'그림이 시대의 정신을 담을 수 있을까?' '필묵이 나라의 지향을 밝힐 수 있을까?'

시대의 이상과 운명에 답한 조선의 자화상 '그림문답'이 출간됐다. 미술이 문학, 역사와 만나는 지점에 관심이 깊은 저자 이종수는 '그림문답'에서 작품의 감상 수준을 뛰어넘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림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추적했다.

건국의 꿈으로 뒤척이던 세종 시대, 이념과 권력을 따라 모이고 또 흩어졌던 16세기 사림의 시대, 붕당의 혼란 속에 진지하게 자아를 돌아보았던 숙종 시대, 진경의 절정에서 일상의 풍경을 발견해낸 정조 시대, 사라져가는 전통을 회고하고 연민하는 고종 시대까지….

저자는 그림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시도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이상과 운명을 그림 밖으로 불러냈다. 당대의 물음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시대의 정신과 지향을 그림으로 답한 화가들과 교감하고 해석과 상상을 넘나들어 조선 500년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책 속에서 조명한 화가들은 당대의 주류를 거슬러 오직 자신만이 남길 수 있는 '다른 조선'을 고민한 이들이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윤두서의 '자화상' 장승업의 '귀거래도' 등을 만날 수 있다.

〈생각정원·1만7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빈곤은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문제

'빈곤'

김윤태·서재욱 지음

인류의 풀리지 않는 과제는 빈곤이다. 사실 복지국가의 역사는 빈곤의 투쟁으로부터 이룩한 빈곤의 해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재욱 연구원이 쓴 '빈곤'은 빈곤에 대한 체계적이고 친절한 입문서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빈곤 문제를 둘러싼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등 빈곤의 다면성을 고찰하고 빈곤과 연계된 다양한 이데올로기, 사회적 이론도 들여다본다.

보편적 복지나 복지확대를 주장하면 자칫 '빨갱이' 소리를 듣기 쉬운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빈곤은 당장 모두가 함께 나서서 싸워야 할 광범위하면서도 심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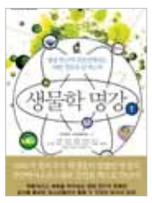
〈한울 아카데미·3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생명연구

'생물학 명강1'

강문일 외 지음



경암바이오 시리즈 첫번째 '생물학 명강1'이 책으로 나왔다.

강문일 전남대 수의학과 교수 등 국내 저명 과학자 15명의 경암바이오 유스캠프 강연을 글로 엮어낸 생물학 교양 도서다.

경암바이오 시리즈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지난 2005년부터 생명과학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캠프다.

이 책은 15명의 생물학자가 어떤 화두를 붙들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지, 전 세계의 생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들려준다.

저자마다 관심 분야와 연구주제, 심험동물은 다르지만 독창적인 문제제기와 실험정신은 동일하다. 또한 각 저자의 글 마지막 부분에 신인철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그린 위트 넘치는 카툰이 첨부돼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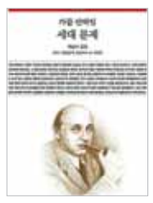
〈해나무·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오늘날 한국사회의 화두… 세대문제 다뤄

'세대 문제'

카를 만하임 지음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세대 전쟁…. '세대 문제'는 그동안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인류와 함께해온 '오래된 문제'다. 고대 그리스 신전 기둥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세대 문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 사회학자로 고전사회학과 지식사회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카를 만하임이 쓴 '세대 문제'가 번역돼 나왔다. 카를 만하임은 처음으로 세대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체계적인 이론 틀을 제시한 학자다.

카를 만하임은 이 책에서 실증주의적인 수직적 세대론과 낭만주의적인 수평적 세대론을 결합해 독창적인 구조적·사회운동적 세대론을 제시한다. 그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세대를 고찰하고 세대운동을 계급운동과 비교하며, 동일 세대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대단위가 존재함을 역설한다.

그의 논의를 통해 수평적인 세대 이해가 가능해졌으며, 동시대 동일 세대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사회운동 조직화를 위한 이론과 실천 방향이 정립됐다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분석이다. 이 책이 우리 시대 세대 논의의 출발점이자 경유점임을 시사하는 바다. 〈책세상·79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간

▲인문학 개념정원=문학평론가 서영채의 신개념 인문학 개론서 '인문학 개념정원'이 출간됐다. 그동안 평론집과 연구서를 출간해 온 저자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자는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든다는 연쇄 속에서 '인문학 개념정원'을 펴냈다. 책의 아이디어는 이십대 초반 대학생 시절 저자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문학동네·1만1000원〉

▲북학의=최초의 원문 교감 작업을 통해 탄생한 완역 정본 북학의. '북학의(北學議)'는 조선의 경장을 꿈꾼 18세기 후반의 사상가 박제가(1750~1805)의 저술이다. 이 책은 선진적인 중국의 문물을 배워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그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다. 완역 정본 북학의는 20여종의 사본을 교감하고 주해하는 작업을 거쳐 탄생한, 말 그대로 정본이다.

〈돌베개·2만8000원〉

▲김난도의 내:일='아프니까 청춘이다'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전 세계 300만 독자가 열광한 청춘멘토 김난도가 청년구직자에게 전하는 조언.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의 기저에는 '내 일'이 없다는 문제가 자리한다. 하고 싶은 일이 없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잡지 못한 젊은이들은 아픔과 흔들림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한다. 책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다섯가지 일자리 전략을 제안한다. 〈오우아·1만5000원〉

▲프로이트 씨,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고전에 담긴 내용을 청소년의 생활에 빗대어 소개한 인문학 책이다. 쉬운 말로 씌어 있어 처음 인문학 책 읽기를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유용하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과 사회를 통찰하는 방법을 열어준다. 프로이트의 삶과 이론, 영향을 준 사상가들의 면면을 살피다 보면, 정식분석 이론은 결국 나와 타인, 사회 전체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이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탐·1만2000원〉

▲일생의례로 보는 근대 한국인의 삶=변화와 왜곡이 가장 극심했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한국인들의 삶을 일생의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많은 혼란과 충돌이 있었던 여러 문화전통의 양상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출산의례·관례·혼례·상례·제례를 대상으로, 11명의 저자들이 분야별로 나눠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일생의례가 근대시기 한국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소상히 알려준다. 〈채륜·2만2000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어린이책 200선=책은 인간이 만든 가장 힘이 센 도구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삶을 가꾸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를 입기도 한다. 저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사회에서 어린이독서문화운동을 하면서 신문이나 화보에 소개했던 책 가운데 200권을 골랐다.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2만5000원〉

어린이 책꽂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시간과 공간을 뒤흔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과학 이야기 그림책. 아무도 한 적 없는 놀랍고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를 따뜻하고 간결한 문장과 경쾌하고 세련된 그림을 통해 보여준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지, 생각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이야기속에 담겨 있다. 〈문학동네·1만1000원〉

▲찰스 다윈은 무엇을 보았을까?=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해군 측량선 '비글호'를 타고 5년여 동안 과학 탐사를 하며 보고 기록한 내용을 사실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재구성한 교양 그림책이다. 미국 일러스트레이터 로절린 샌저가 다윈이 남긴 '비글호 항해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파란자전거·1만1900원〉

▲사파리 세계를 탐험하라=3차원 입체 팝업과 함께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을 만나는 사파리 여행. 아프리카의 다양한 서식지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야생 동물의 특성을 생생한 사진과 그림으로 소개한다. 야생 동물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으며, 생태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시공주니어·1만9500원〉

▲엄마를 안아 주는 아이 외=장애·비장애 어린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동화 시리즈 '푸르메놀이터'. 국내 어린이문학 대표작가들과 뜨인돌출판사, 푸르메재단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 나눔과 소통이 있는 사회' 취지에 부합하고자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푸르메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엄마를 안아 주는 아이' '겁쟁이 늑대 칸'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3권이 먼저 출간됐다. 〈뜨인돌어린이·각 권 9000원〉

▲플루토 비밀결사대 5='플루토'라는 이름의 비밀결사대를 만든 다섯 아이들이 펼치는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추리 모험 동화 '플루토 비밀결사대' 완결편 '퍼즐을 맞춰라'가 출간됐다. 2005년 시리즈 1권 '다섯 아이들이 모이다'를 시작으로 8년만에 5편이 출간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비룡소·9000원〉